

# 인문치료와 내러티브

이영의\* 김남연\*\*

## 【요약】

인문치료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실존적 문제들과 그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한다. 인문치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간성에 대한 올바른 통찰 없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존적 문제와 정신적 고통 중 상당수는 정체성의 상실 및 혼란과 더불어 타자 및 세계와의 적절치 못한 관계로부터 유래한다.

이 논문은 인문치료의 목적이 올바른 정체성과 세계관 확립에 있다고 보고 내러티브가 인문치료에 관련되는 구체적 방식을 검토한다.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인문치료의 목적과 대상을 중심으로 인문치료의 정체성이 검토된다. 3장에서는 인문치료의 주요 원리로서 초월성원리가 제시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인간을 내러티브적 존재로 보는 견해가 다루어진다. 4장에서는 이전 논의를 바탕으로 인문치료를 위한 내러티브적 모형이 검토된다. 먼저 매킨타이어(MacIntyre)의 이론에 기반을 둔 내러티브 모형이 제시되고 이어서 존슨(Johnson)이 제시한 인지과학적 모형을 검토함으로써 인문치료의 경험적 토대를 확보하고자 한다.

【주제어】 인문치료, 초월성원리, 내러티브적 존재, 내러티브 치료, 출발-경로-목표 스키마

---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강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56).

## I. 들어가는 말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치료, 상담, 힐링이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로는 2013년에 개정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SM-5)』이 있는데, 거기에는 무려 265가지의 정신장애들이 분류되어 있다. 그런 장애들이 모두 진정한 ‘질병’인지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현대인들이 정보 기술(IT), 바이오 기술(BT), 나노 기술(NT)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빠른 물결에 휩싸여 정신적 균형을 상실하고 다양한 정신적 문제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멀지 않은 미래에 인간은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으며 심지어는 인간의 멸종이라는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이 위협받고 인간의 멸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문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인문학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인문학은 인간의 본성, 가치, 진리 등을 중심으로 인간다운 삶의 양태를 연구해 왔으므로 인문학이 여전히 현실적 유용성을 갖고 있다면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빛을 발해야 할 것이다. “신체의 병은 의사가 치료하고 영혼의 병은 철학자가 치료한다”는 스토아철학자들의 견해가 타당하다면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은 현대인의 영혼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인문치료는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인문치료는 인문학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실존적 문제들과 그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한다. 인문치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인간에 대한 올바른 통찰 없이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치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대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문제나 고통 중 상당수는 정체성의 상실과 혼란과 더불어 타자 및 세계와의 적절치 못한 관계로부터 유래한다.

이 논문은 인문치료의 목적이 올바른 정체성과 세계관 확립에 있다고 보고 내러티브가 인문치료에 관련되는 구체적 방식을 검토한다.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인문치료의 목적과 대상을 중심으로 인문치료의 정체성이 검토된다. 3장에서는 인문치료의 주요 원리로서 초월성원리가 제시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인간을 내러티브적 존재로 보는 견해가 다루어진다. 4장에서는 이전 논의를 바탕으로 인문치료를 위한 내러티브적 모형이 검토된다. 먼저 매킨타이어(MacIntyre)의 이론에 기반을 둔 내러티브 모형이 제시되고 이어서 존슨(Johnson)이 제시한 인지과학적 내러티브 모형을 검토함으로써 인문치료의 경험적 토대를 확보한다.

## II. 인문치료의 정체성

인문치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인문치료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며, 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인문치료의 목적, 대상, 이론, 방법 등을 올바르게 제시해야 한다. ‘인문치료(humanities therapy)’라는 개념은 2007년 강원대학교 인문치료사업단에 의해서, 단순한 치료법(therapy)이 아니라 ‘학(學)’으로서, 공식적으로 제시되었다. 강원대학교 인문치료사업단은 다음과 같이 인문치료를 정의하고 있다.

인문치료란 인문학적 정신과 방법으로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사람들의 정신적·정서적·신체적 문제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이론적·실천적 활동이다. ‘인문치료’에서 ‘인문’의 의미에는 인문학적 가치를 실현하여 마음의 문제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인문학 주축의 제반 관련 학문들이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문학, 언어학, 사학, 철학, 종교학, 미학들을 기반으로 하고 인문학과 발생론적으로

한 뿌리였던 예술, 심리학, 의료인문학 등의 관련 학문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 인문치료는 마음의 병이나 고통, 불균형, 불편함 등의 문제 및 여기서 비롯된 신체적 문제를 그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sup>1)</sup>

위의 정의에 따르면 인문치료는 마음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치유하고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건강한 삶과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문학적 이론과 방법을 개발하는 매우 학제적인 분야이다. 인문치료의 주 대상은 삶으로부터 유래하는 문제들과 그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다. 이는 곧 인문치료의 대상은 의학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질병이 아니라 ‘일상인이 겪는 마음의 병’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정의에 등장하는 ‘병’이나 ‘치료’라는 개념을 엄격하게 의학적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으며, 인간 삶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문학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예로부터 인문학자들은 삶의 문제와 그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왔다. 헬레니즘 철학자들이 주장했듯이 철학은 영혼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고대에서 철학은 현대와 달리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포괄하는 분야로 인식되었지만, 철학을 구성했던 분야들이 개별 학문으로 독립해 나간 이후부터는 철학만이 영혼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헬레니즘 철학자들의 자부심 넘치는 선언을 “신체의 병은 의사가 치료하고 영혼의 병은 인문학자가 치료한다”고 수정해야 한다. 심리학이 심리치료를 경험적으로 연구하여 많은 학파를 이루고 다양한 업적을 축적하고 있으며 또한 종교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강력한 영성치료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문학의 치료적 효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문학은 고대와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여전히 치료적 효용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며 그런 회의적 시각은 주로 인문학의 효율성조차도 경험과학적 기준으로 판단되는 시대적 조류 때문에 대두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pp. 18-19.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시대적 환경에 어울리는 치료 이론과 방법을 개발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인문학의 치료적 효능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에 대한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자신과 타자, 그리고 세계에 대해 생각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파악하며, 올바른 가치와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인문학이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치료적 효능이다. 흔히 인문학은 관찰과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과학과 구별된다고 이해되고 있지만 그런 이해는 피상적이다. 인문학의 연구가 자연과학의 경우처럼 문자 그대로의 ‘경험적’ 실험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문학에는 강력한 ‘사고실험(gedanken-experiment)’이라는 실험적 방법이 있다. 인문학에서 수행되는 사고실험은 ‘사유’, ‘성찰’, ‘반성’, ‘숙고’ 등 다양한 정신적 활동을 통해 수행되는데, 그 본질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세계를 상정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고를 진행한다는 데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고’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자신과 세계를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함축한다. 인문학의 본질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적절한 관점을 계발하는 데 있으며, 인문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점을 계발함으로써 실제로는 인문치료를 구현해 왔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변명(Apology)』에서 조용한 시민 생활을 즐기지 않고 왜 굳이 동료 시민들을 귀찮게 하는가라는 가상적 추궁에 대해 대답하면서 “반성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 제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기도 한 것은 이것이라고, 즉 훌륭한 상태에 관해서 그리고 그 밖의 것들로서, 제가 대화를 하며 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깨물어 들어가는 중에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논의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반성되지 않은 삶은 사람에게는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 ... 여러분은 더욱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sup>2)</sup>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삶에 대한 반성’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특히 철학적 반성은 자아, 타자, 세계에 대한 토론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무지와 오류를 발견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가능케 한다.

스토아철학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많은 지혜를 남겼는데, 그 핵심은 세계를 보는 관점의 중요성에 있다. 에픽테투스는 “인간은 외적 대상들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그들의 원리들과 개념들로 인해 고통 받는다”고 주장했다.<sup>3)</sup>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통은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 극복되고 초월될 수 있다는 통찰은 현대에 이르러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 계열의 심리치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up>4)</sup> 철학상담에서 이 점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인물은 라하브(Ran Lahav)이다. 라하브에 따르면 철학상담은 심리적 방법이 아니라 철학적 방법으로 일반인의 삶의 곤경을 다루는 분야이며,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은 내담자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계발하여 세계관을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sup>5)</sup>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인문치료의 주요 목적은 사람들이 자신과 세계에 대해 올바른 관점, 즉 올바른 자아관과 세계관을 계발하고 유지하도록 격려하고 돕는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문학은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떤 목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탐구이며, 인문치료는 그런 자기탐구를 특정한 개인이 특정한 실존상황에서 추구하도록 돕는 전문적인 실천이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수많은 인문학자들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강조해 왔다. 1980년대에 현대 철학실천(philosophical

2) Socrates, *Apology* in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38a.

3) Epictetus, *Enchiridion* (Hackett Publishing Co., 1983), 5장.

4) A. Beck의 인지치료(cognitive therapy)와 A. Allis의 합리적 정서행동치료(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가 그 좋은 예이다.

5) R. Lahav & M. da V. Tillimanns (1995).

practice)을 창시한 아헨바흐(Gerd Achenbach)는 삶을 ‘세계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으로 보는 비유를 통해서 선장은 삶의 문제와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며, 철학실천가는 항해사라고 주장했다.<sup>6)</sup> 이런 점에서 인문치료를 찾아온 사람은 내담자가 아니라 삶의 문제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려고 방문한 손님이기 때문에, 인문치료사는 손님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고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항해사로서의 인문치료사는 내담자의 배가 안전한 항구를 출발하여 바다로 들어가 갈증, 무풍, 폭풍 등 다양한 역경을 헤치고 최종 항구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배가 어디에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는지, 선장은 역경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항해가 의미 있는 여정이 되도록 조언한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항해 경로와 앞으로의 경로를 그려보는 내러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이 점은 다음 장에서 논의된다.)

### Ⅲ. 초월성원리와 내러티브적 존재

#### 1. 초월성원리

이제 인문치료를 규제하는 근본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인문치료의 출발점은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존재론에서 나타난다. 서양철학의 경우 인간은 몸과 마음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분석되어 왔는데 학자들에 따라 그것들의 속성이 다르게 정의되고 그 중 어떤 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 데카르트는 세계가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가지 실체로 구성되어

---

6) G. Achenbach (1997), p. 9.

있으며 정신의 속성은 사고이고 물질의 속성은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신과 물질은 실체이므로 원칙적으로 마음과 몸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되며, 이로부터 악명 높은 심신문제(mind-body problem)가 나타난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실체이원론을 벗어나 마음과 몸의 관계를 다르게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다. 예를 들어 후설(Husserl)은 물질로서의 육체(Körper)와 살아있는 몸으로서의 신체(Leib)를 구분하고,<sup>7)</sup> 그것에 대응하여 신체와 무관한 정신(Geist)과 신체와 유관한 마음(Seele)을 구분했다.<sup>8)</sup> 후설에 따르면 데카르트가 파악한 정신은 신체와 구분되는 상위 차원의 정신과 신체와 관련되는 하위 차원의 마음으로 구분된다.<sup>9)</sup>

마음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 프랑클(Viktor Frankl)은 자유의지의 소유 여부에 따라 마음과 영혼을 구분한다. 프랑클에 따르면 인간은 신체, 마음, 영혼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sup>10)</sup>

- 신체(soma, body): 생물학 법칙의 지배를 받음
- 마음(psyche, mind): 심리학 법칙의 지배를 받음
- 영혼(noos, spirit): 생물학이나 심리학의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자유의지를 소유함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클이 넓은 의미로서의 마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자유의지의 소유 여부이다. 마음은 심리학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의지를 소유하지 못하며, 영혼만이 그런 자유의지를 소유한다. 이런

7) E. Husserl (1973), p. 57.

8) E. Husserl (1952), p. 280.

9) 후설의 신체(Leib)와 마음(Seele) 개념은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현상학을 거쳐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 이론으로 발전한다. 이 글에서 제시되는 인문치료를 뒷받침하는 마음 이론은 체화된 마음 이론이다. 이에 대한 국내 논의는 이영의(2008, 2015a), 이기홍(2012)을 참조할 것.

10) V. Frankl (1969), pp. 32-33.



점에서 프랑클이 제시한 구분은 인문치료를 의학치료나 심리치료와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을 제공한다. 신체는 생물학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신체의 병’은 경험과학적으로 치료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마음의 병’은 심리학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그 두 가지 치료들은 인과법칙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와 반면에 영혼의 작동은 법칙적이지 않고 자유의지에 따르기 때문에 ‘영혼의 병’은 인과적으로 치료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영혼의 병은 어떻게 치료되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프랑클은 삶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기본적인 욕구인 ‘의미에의 의지’를 강조했다. 프랑클에 따르면, 영혼의 병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거나 회복함으로써 치료될 수 있다.

삶의 의미와 관련하여 환기해야 할 점은 쾌락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인간은 단순히 정신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의 삶이 쾌락으로만 채워질 수 없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불교의 교리가 강조하듯이 인생 자체가 고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삶에는 쾌락과 고통이 공존하며, 삶의 의미는 쾌락이라는 긍정적 측면만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측면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데서 발견될 수 있다. 인간의 삶은 생물학적 차원과 심리학적 차원 보다 더 높은 영혼의 차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문치료의 근본 원리인 초월성원리가 유도된다.

- 초월성원리: 영혼은 생물학적·심리학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높은 차원에 속하는 삶의 의미를 지향하기 위해 현재 상태를 초월한다.

초월성원리는 사실성과 당위성을 동시에 갖는다. 즉 그 원리는 한편으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요청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초월성은 항상성(homeostasis)의 반대 개념이다. 항상성은 유기체에

필요한 생물학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본능이다. 인간은 다른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체온 유지, 영양 섭취, 신진대사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 항상성 유지는 삶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의학치료는 본질적으로 항상성 유지를 목적으로 갖기 때문에 거기서는 환자의 신체적 상태와 정신적 상태를 질병 이전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존재를 부정하고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행동치료나 영혼이 아니라 마음의 작동에만 초점을 두는 심리치료도 의학치료와 마찬가지로 항상성 유지라는 목적을 갖는다. 여기서 우리는 의학치료와 심리치료가 본질적으로 항상성 유지에 초점을 둔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항상성 유지가 중요치 않다거나 항상성을 복원하려는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생물적·심리적 차원에서의 항상성 유지는 인간 삶의 본질은 아니며 그런 이유로 인문치료는 항상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쾌락주의나 심리치료는 각각 마음의 평형(ataraxia)이나 심리적 안정과 같은 긍정성만을 강조함으로써 부정성이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간과하는 실수를 범했다. 인간의 삶은 쾌락이나 심리적 안정과 같은 긍정성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으며, 설사 그것들이 충족되더라도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것은 어렵다. 인문치료는 곤경, 불안, 절망, 고통과 같은 부정성이 삶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극기와 수양 등을 통해 그것들을 초월하는 덕을 강조한다.

## 2. 내러티브적 존재로서의 인간

내러티브는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대상들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점에서 내러티브는 우리의 경험을 구성하는 동시에 역으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런 양방향성

때문에 내러티브는 주체와 세계를 연결하는 길을 제공하며 이는 곧 내러티브가 인문치료를 위한 중요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브루너(Jerome Brunner)는 어린이들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내러티브적으로 조직하는 법을 배운다고 제안하면서 이런 점에서 내러티브는 문화가 제공하는 규범적 세계(cannonical world)와 믿음, 욕구, 희망 등으로 구성되는 특이 세계(idiosyncratic world)를 중재한다고 주장한다.<sup>11)</sup>

우리는 앞에서 인문치료의 목적은 자아정체성 확립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자아란 무엇인가? 자아란 나를 ‘나’라고 인식하는 주체이다. 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자아를 시공간에서 지속되고 있는 실체로 간주해 왔지만 개념을 둘러싼 논쟁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자아 개념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sup>12)</sup> 우리는 이 글에서 별도의 논증 없이 자아란 내러티브의 산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논의를 전개한다.<sup>13)</sup> 자아가 내러티브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면, 자아 확립의 문제는 곧 올바른 내러티브 구성의 문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인문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어떻게 적합한 내러티브 모형을 구성하는가라는 문제로 전환된다.

많은 학자들이 일찍이 내러티브의 자아 형성 기능을 파악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앞에서 언급된 브루너 외에도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 테일러(Charles Taylor), 리피르(Paul Ricoeur)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매킨타이어의 이론을 중심으로 내러티브의 치료적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매킨타이어는 언어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발언들은 내러티브적 맥락 안에 놓이지 않는 한 이해 불가능하고 개인의 정체성은 내러티브적 구조를 갖는다. 그는 자기 이해와 자기 행위의 내러티브적 맥락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1) J. Brunner (1990), p. 52.

12) R. Winkler (2016), pp. 7-12를 참조할 것.

13) 자전적 자아에 대한 논의는 D. Dennett(1986), A. Damasio(1999), S. Gallagher(2000), J. Brunner(2004)를 참조할 것.

인간은 자신의 허구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실천 내에서도 본질적으로 스토리텔링 동물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는 아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진리를 열망하는 이야기꾼이 된다. 인간에게 핵심적인 질문은 자신의 저작권이 아니다. 우리는 ‘나를 어떤 애기의 부분으로 발견하는가?’라는 앞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하나 이상의 귀속된 개성들을 갖고, 즉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들을 갖고 사회에 진입하며, 어떻게 타인들이 우리에게 대응하며 어떻게 그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sup>14)</sup>

예를 들어, 뒤마(Alexandre Dumas)의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에서 주인공은 어떤 맥락에서는 ‘이프섬의 죄수’로 기술되고 또 다른 맥락에서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기술되기도 한다. 독자들이 이 소설이 동일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는 그 인물에 주목하여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의 정체성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에 대해 기술되고 있는 정체성과 일치한다.

인간은 내러티브 망 속에서 태어나며 내러티브적 질문을 통해 삶의 목적을 설정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내러티브적 주체이고 호모 나랜스(Homo Narrans)이며 인간의 행위와 행위의 의도는 내러티브 망과 독립하여 이해될 수 없다. 인간은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내러티브 망에 등장하는 인물이며 그 망의 공동 저자라는 점에서 도덕적 행위자이다. 도덕적 행위자는 내러티브의 망에서 내러티브적 질문을 통하여 자신의 목적(telos)을 규정해 나간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삶의 목적은 내러티브적 통일성을 향한 질문을 통해 추구된다. 매킨타이어는 행위를 의도와 분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행위가 발생하는 맥락, 또는 그 자신의 용어인 ‘세팅(setting)’의 역할을 강조한다.<sup>15)</sup>

14) A. MacIntyre (1981), p. 216.

15) A. MacIntyre (1981), p. 206.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행위는 행위자의 목적과 의도로부터 지적 방식으로 유래하기 때문에 행위의 역사적 특징과 세팅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는 인과적 방식이 아니라 내러티브적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sup>16)</sup>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행위의 의도와 목적을 내러티브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매킨타이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담, 즉 미시적 설명과 거시적 설명을 제시한다.<sup>17)</sup> 첫째, 행위에 대한 미시적 설명은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된다. (a) 의도와 연관된 행위적 특징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기, (b) 행위적 특징들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기. 둘째, 행위에 대한 거시적 설명은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된다. (c) 행위자의 역사 속에서 의도들을 시간적 순서로 정리하기, (d) 세팅이나 세팅의 역사 속에서 의도들을 정리하기.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문치료를 위한 내러티브적 모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IV. 인문치료의 내러티브 모형

앞 장에서 살펴 본 매킨타이어의 행위 이론은 행위를 그 목적과 의도를 중심으로 내러티브라는 틀 안에서 설명한다. 물론 매킨타이어는 그 이론을 치료적 관점에서 제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문치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일은 그의 의도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매킨타이어의 관심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윤리적 행위자 이론을 제시하는 데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제시한 내러티브적 이론을 인문치

16) A. MacIntyre (1981), p. 209. 인간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설명 모형이 대립하고 있다. 그 행위는 인과 관계에 주목하는 인과적 설명(causal explanation) 모형이고, 다른 행위는 목적이나 의도에 주목하는 목적론적 설명(teleological explanation) 모형이다. 매킨타이어가 주장하는 내러티브적 설명(narrative explanation) 모형은 후자에 속한다.

17) 이영의 (2015), pp. 344-345.

료를 위한 모형을 구성하는 데 활용하는 일은 오히려 그 이론의 장점을 드러내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앞에서 제시된 (a) - (d)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인문치료를 위한 내러티브 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 1단계
  -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 2단계
  - 의도와 연관된 행위적 특징과 그렇지 않은 특징을 구분하기
  - 행위적 특징들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기
  
- 3단계
  - 행위자의 역사 속에서 의도들을 시간적 순서로 정리하기
  - 세팅이나 세팅의 역사 속에서 의도들을 정리하기
  
- 4단계
  - 자전적 글쓰기

위에서 제시된 내러티브 모형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일정한 형식과 제한 없이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계이다. 내담자의 삶의 이야기는 이후의 단계를 위한 기본적인 텍스트가 된다. 위의 모형에서 미시적 요소(2단계)를 거시적 요소(3단계) 보다 앞에 배치한 것은 미시적 요소를 통해 내담자의 의도와 세팅이 분류되고 그것들의 관계가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 상황에 따라서는 인문치료사는 2단계와 3단계의 순서를 바꾸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1단계 전후에 4단계인 자전적 글쓰기를 실시할 수도 있다.

내러티브 모형의 마지막 단계는 이전의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이해와 통찰을 기반으로 자서전을 쓰는 단계이다. 우리의 상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전적 글쓰기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자전적 글쓰기는 ‘글쓰기’라는 형식에 구속될

필요는 없으며, 내담자의 성향과 수준을 고려하여 다른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내담자는 현 시점까지의 자신의 삶과 미래의 삶에 대한 자전적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여 과거의 사진이나 영상과 내러티브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

위에서 제시된 내러티브 모형은 매킨타이어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나 행위의 의도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철학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되었듯이 내러티브의 치료적 기능은 철학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심리학에서도 주목을 받아왔고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문학치료의 경우에는 일찍이 스토리텔링이나 내러티브의 치료적 기능을 활용하는 모형이나 기법이 연구되어 왔다.<sup>18)</sup> 심리치료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 화이트(Michael White)와 엡스톤(David Epston)에 의해 내러티브 치료(narrative therapy)가 창시되었다.<sup>19)</sup> 화이트는 내러티브 치료에서 중시되는 자아는 실체로서의 자아가 아니라 선택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정체성은 개인적 성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격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sup>20)</sup> 사르트르가 강조했듯이 인간의 본질은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는 데 있으며, 실존하는 개인의 정체성은 자유로운 선택들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한다. 화이트와 엡스톤의 내러티브 치료는 일차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적 경험을 담은 스토리에 초점을 두고, 말하기 방법을 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러티브적 접근이나 문학치료에서 현재 널리 논의되고 있는 스토리텔링 치료에 비해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런 세부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모두 내러티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주목하고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내담자에게 삶의 문제와 곤경, 고통을 이해하고

18) 이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변학수, 「내러티브의 기능과 문학치료」(2012), 이민용, 「스토리텔링 치료의 치료 요인과 그 적용」(2011), 「내러티브 텍스트의 구조와 속성으로 본 문학치료-페트릭 오닐의 내러티브 텍스트학을 중심으로」(2016)를 참조할 것.

19) M. White & O. Epston (1990).

20) M. White (2007), p. 139.

초월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제공하려는 노력한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 검토되고 있는 인문치료를 위한 모형으로 수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러티브 모형이나 내러티브 치료를 주로 인문학적 틀 안에서 검토해 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러티브 치료는 경험과학적 기반이 약하고 그것의 임상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sup>21)</sup> 그러나 이런 비판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일부 내러티브 치료에 국한되어 적용될 수 있을 뿐 내러티브 치료가 본래적으로 경험적 토대를 갖지 못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내러티브 치료가 발생적으로 인문학적 성격을 갖게 되었지만 경험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경험적 기반을 갖추고 임상적으로 검증 가능한 내러티브 치료를 개발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서 내러티브에 대한 인지과학적 연구 결과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철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존슨(Mark Johnson)은 체화된 마음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자아와 행위에 대한 내러티브적 맥락을 다룰 수 있는 도덕적 상상력 이론(theory of moral imagination)을 제안한다. 존슨은 삶에서 발견되는 내러티브적 구조의 기원과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 내러티브적 자아 통일성은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들의 연속에서 정합성을 획득하는 수단인 상상력을 통해 나타난다는 작업가설을 제안한다.<sup>22)</sup> 존슨에 따르면, 전형적인 내러티브가 갖는 ‘시작-중간-종결 구조(beginning-middle-end structure)’는 보다 근본적이면서 상상력이 풍부한 패턴인 ‘출발-경로-목표 스키마’(SOURCE - PATH-GOAL schema)의 한 가지 사례이다.<sup>23)</sup> 존슨이 주목하는 그 스키마는 리피르의 전형적인 이야기-구조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21) M. Etchison & D. M. Kleist (2000), pp. 61-67.

22) M. Johnson (1993), p. 165.

23) M. Johnson (1993), p. 166.



이야기를 따르는 것은 그 이야기의 ‘결론’에서 그 성취를 발견하려는 기대의 안내를 받아 우연성과 사태의 급변함이라는 와중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 이것은 그 이야기에 ‘종착’을 제공하고, 그 종점은 다시 그 이야기가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인지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그리고 왜 연속적인 사건들이 그 결론으로 나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원저자 강조)<sup>24)</sup>

내러티브는 삶에 대한 이야기이며, 모든 이야기는 내적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는 위에 인용된 리코어의 글에서 이야기가 여정(journey)처럼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이야기와 여정은 동일한 내적 구조를 갖는다는 “이야기는 여정이다”라는 은유(STORIES ARE JOURNEY metaphor)가 성립하게 된다. 존슨에 따르면, “이야기는 여정이다”라는 은유는 다음 표에서 나타나듯이 보다 근본적인 ‘출발-경로-목표 스키마’에 기반을 두고 있다.<sup>25)</sup>

공간적 이동 (Spatial movement)		여정 (Journey)		이야기 (Story)
이동 대상 (Moving object)	→	여행자 (Traveller)	→	주인공 (Protagonist)
초기 조건 (Initial conditions)	→	활성화 조건 (Enabling conditions)	→	세팅 (Setting)
출발점 (Starting point)	→	출발점 (Point of departure)	→	시작 (Beginning)
종착점 (End point)	→	목적지 (Destination)	→	결론 (Conclusion)
장애물 (Obstacles)	→	곤경 (Difficulties)	→	적대자, 곤경 (Antagonist, Difficulties)
흥미유발 요소 (Interesting forces)	→	갈등 (Conflict)	→	갈등 (Agon)

[표-1] 출발-경로-목표 스키마 도표

24) P. Ricoeur (1984), p. 66.

25) M. Johnson (1993), p. 169.

이제 위의 스키마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관심사인 인간 행위의 내러티브적 구조를 검토해 보자. 리피르에 따르면, 행위들은 아래에 제시된 사항들로 구성된 개념망(conceptual network)을 재생하는 한에서 단순한 사건들과 구조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

- ① 목표(goal): 행위는 목표를 지향한다.
- ② 동기(motives): 행위가 수행된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그것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③ 행위자(agent): 행위는 그의 행위이며, 따라서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 ④ 맥락적 상황(contextual circumstance): 행위는 자신의 성격을 결정짓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맥락에 내재되어 있다. 신체적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특정 맥락 안에서 행위들에 특정 성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식별될 수 있다.
- ⑤ 타인과의 상호 작용(interactions with others): 종종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협력하거나 투쟁하는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다.
- ⑥ 의미 있는 존재(meaningful existence): 어떤 행위가 아무리 일상적이거나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항상 더 큰 계획, 즉 의미 있고 성취된 삶을 살기위한 행위자의 시도의 일부이다.
- ⑦ 책임(responsibility): 행위자의 행위는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행위가 낳는 많은 결과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

위에서 제시된 구조적 특징들은 행위의 내러티브 망을 형성하지만 그것들 자체는 내러티브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내러티브적 구조가 창발하는 경험 속에 있는 합성적 토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존슨에 따르면, 그런 내러티브적 구조는 리피르가 말한 인간 행위의 ‘내러티브 이전 특징(prenarrative character)’이라는 개념에 상응한다.<sup>26)</sup>

우리가 여기서 존슨의 이론을 검토한 이유는 그의 인지과학적 접근이 치료에 대한 내러티브적 접근이나 내러티브 치료에 대해 경험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비록 이 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지는

---

26) M. Johnson (1993), p. 174.

못했지만 존슨의 이론은 그런 기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부응한다. 존슨은 인지과학자 레이코프(George Lakoff)와 팀을 이루어 마음과 인지에 대한 체화적 접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그들의 연구는 은유와 몸의 의미를 넘어 수학, 윤리, 정치 분야의 주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연구는 인지과학을 활용하여 매킨타이어나 리피르와 같은 인문학자들이 제안한 내러티브 이론에 대해 경험과학적 기반을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인문 치료를 위한 적합한 내러티브 모형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V. 맺는말

지금까지 우리는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인문치료의 정체성과 인간 존재 및 삶의 의미, 그리고 인문치료를 위한 모형을 검토했다. 자아 정체성은 내러티브의 창의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인문학자들뿐만 아니라 인지과학자들도 내러티브의 치료적 기능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있다. 자아 정체성은 내러티브의 산물이므로 자아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은 내러티브의 구성의 문제가 되고 그 결과 인문치료 이론가들의 관심은 내러티브의 구조, 특히 내러티브의 인지적 구조에 놓이게 된다. 본문에서 논의되었듯이, 내러티브는 자아 정체성과 행위의 시간적 차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 구조를 제공하므로 내러티브는 인문치료를 위한 치료 모형과 방법을 개발하는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내러티브 치료가 갖는 질적 특징 때문에 과학적 심리학으로 무장한 심리치료에 비해 경험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이 글에서 제안되었듯이 내러티브에 대한 인지과학적 이론을 활용하여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존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인지과학은 인문학과 경험과학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인문치료 연구자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 중에는 그동안 연구를 통해 축적된 여러 가지 내러티브 이론들을

인지과학의 틀 안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작업을 통해 인문치료는 한편으로는 인문학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자아, 정체성, 자율적 행위와 같은 인문학적 주제를 다루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주제들을 경험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성숙된 학문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인문치료』, 강원: 강원대학교출판부.
- 김선희 (2015), 「고통에 대해 어떻게 말할 것인가?: 고통 받는 이를 위한 철학 상담의 가능성」, 『인간·환경·미래』, 14: 3-28.
- 김영근 (2015), 「인간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치유에 관하여: 상담관계의 맥락 안에서」, 『인간·환경·미래』, 15: 37-66.
- 변학수 (2012), 「내러티브의 기능과 문학치료」, 『뫼히너와 현대문학』, 39: 285-305.
- 이기홍 (2012), 「마음의 경계, -부속 외재주의(HEMC) 비판 그리고 구현주의를 위한 변론」, 『동서철학연구』, 64: 427-456.
- 이민용 (2011), 「스토리텔링 치료의 치료 요인과 그 적용」, 『혜세연구』, 25: 217-240.
- \_\_\_\_\_ (2016), 「내러티브 텍스트의 구조와 속성으로 본 문학치료-패트릭 오닐의 내러티브 텍스트학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137: 153-176.
- 이영의 (2008), 「체화된 마음과 마음의 병」, 『철학탐구』, 23: 5-37.
- \_\_\_\_\_ (2015a), 「체화된 인지의 개념 지도: 두뇌의 경계를 넘어서」, *Trans-Humanities*, 8(2): 101-139.
- \_\_\_\_\_ (2015b), 「의도, 내러티브, 그리고 철학상담」, 『범한철학』, 77: 331-353.
- \_\_\_\_\_ (2016), 「고통변증법」, 『범한철학』, 81: 123-143.
- Achenbach, G. (1997), "About the Center of Philosophical Practice," in Wim van der Vlist (ed.), *Perspectives in Philosophical Practice: Collected Lecture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Congress on Philosophical Practice*, pp. 1-15, Leusden, Netherlands: Vereniging voor Filosofische Practijk.
- Aristotle (1984), *Complete Works of Aristotle, 2 vols.*, J. Barnes (e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runer, J. (1990),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4), "Life as Narrative," *Social Research*, 71(3): 691-710.
- Damasio, A. (1999), *The Feeling of What Happens: Body and Emotion in the Making of Consciousness*, New York: Harcourt Brace.
- Dennett, D. (1986), "The Self as a Center of Narrative Gravity," *Philosophia*, 15: 275-288.
- Ellis, A., & MacLaren, C. (2005),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2nd ed.), New

- York: Impact.
- Epictetus (1983), *Enchiridion*, Trans. by N. P. White, Indianapolis, IN: Hackett Publishing Co.
- Etchison, M. & Kleist, D. M. (2000), "Review of Narrative Therapy: Research and Review," *Family Journal*, 8(1): 61-67.
- Frankl, V. (1969),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New York: World Publishing Co.
- Gallagher, S. (2000), "Philosophical Conceptions of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ve Scien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 4(1): 14-21.
- Husserl, E. (1952), *Ideen zur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II*, *Husserliana IX*, Den Haag: Martinus Nijhoff.
- \_\_\_\_\_ (1973), *Zur Phänomenologie der Intersubjektivität I*, *Husserliana XIII*, Den Haag: Martinus Nijhoff.
- Johnson, M. (1993), *Moral Imagination: Implications of Cognitive Science for Ethic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hav, R. & da V. Tillmanns, M. (1995), *Essays on Philosophical Counseling*, NY: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MacIntyre, A. (1981),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London: Duckworth.
- Plato (1961), *The Collected Dialogues of Plato*, E. Hamilton & H. Cairns (ed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icoeur, P. (1984), *Time and Narrative*, 3 vols., Trans. by K. McLaughlin & D. Pellauer,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aylor, C. (1992),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hite, M. (2007), *Maps of Narrative Practice*, New York: W. W. Norton & Co.
- White, M., & Epston, D. (1990), *Narrative Means to Therapeutic Ends*, New York: W. W. Norton & Co.
- Winkler, R. (2016), *Identity and Difference: Contemporary Debates on the Self*, London: Palgrave Macmillan.

## Abstract

Humanities therapy is a discipline to study various existential problems and sufferings from our daily lives and appropriate attitudes for them. In order for humanities therapy to achieve its purpose, first of all, it has to explicate what human beings are. It is impossible and unfortunate to solve existential problems without proper insights into the nature of human beings, for they are mostly due to people's loss of identity and their inability to maintain proper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the world.

This paper examines a concrete way in which narrative is related to humanities therapy, assuming that its main purpose lies in establishing proper identity and worldview. The order of discussion is as follows. In Chapter 2, the identity of humanities therapy is examined, focusing on its purpose and subject. In chapter 3, the transcendence principle is suggested as a main principle of humanities therapy and the viewpoint which regards human being as a narrative existence is dealt with. In chapter 4,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two narrative models for humanities therapy are examined. First, a model based on the narrative theory of MacIntyre is suggested and, then, the empirical foundation of humanities therapy is secured by examining a narrative model based on the cognitive scientific theory suggested by Johnson.

**【Keywords】** Humanities Therapy, Transcendence Principle, Narrative Existence, Narrative Therapy, SOURCE-PATH-GOAL Schema

논문 투고일: 2017. 3. 15

심사 완료일: 2017. 4. 10

게재 확정일: 2017. 4. 10